

커피샵

새로운 교회가 예배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한 교회를 찾았고 지난주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지난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다. Tigard에 있는 한 커피 샵에서 만나자고 한다. 좋다고 답하고 그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참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었다. 그 커피샵 안 쪽에 한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거의 한 시간가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다. 나중에 물어 보니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 커피샵 구석방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신다고 한다.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셨다. 물론 커피는 각자 사먹는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매주 목사님께서 심방하는 시간인 것이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심방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다.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이 분명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날 참으로 귀한 만남의 방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가? 그 커피샵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일 것이고, 인생의 답답한 이야기들일 것이다. 하지만 커피 한 잔과 담임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많은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 커피샵은 예사롭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였다.

우리도 이러한 장소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골방이다. 그곳은 커피샵의 좋은 커피 향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답답함의 위로가 있고, 막힌 곳에 열린 문이 있으며, 인생의 답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그 장소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곳에는 평안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하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 주신다.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알려주신다. 더 좋은 커피샵을 찾을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 주시며 보여주신다. 우리가 작정한 하루 30분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고 그 장소다. 하나님과의 커피 타임인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이틀 후 나의 아내에게 그 좋은 커피샵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도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 나도 이곳에서 자리를 펴 놓고 성도들을 만날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커피 값이 너무 비싸다. 조금 더 가깝고 괜찮은 곳을 찾아 성도들을 대접하며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 서로에게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는다.